

출토복식을 통해서 본 조선시대 남자 편복포의 시대구분

홍 나 영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The Periodization of Men's Coat(*Peonbokpo*) of the Joseon Dynasty Based On Excavated Costumes

Na Young Hong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2008. 5. 16 투고)

ABSTRACT

The basic costumes of the Joseon dynasty such as pants and jackets were not particularly distinctive over the period in comparison to *po*. The coat that was worn over pants and jacket, however, had different forms in the course of the Joseon dynasty. In this paper, I will analyze the changing style of *pyeonbokpo*, the daily costumes of Joseon man, which were excavated in recent years.

Changes in the collar style were the most distinctive of Joseon *pyeonbokpo* such as *cheolik*, *dapho*, *aekjueum*, *jikryeong*, *daechangyeui*, *jungchimak*, and *juyeui*. Although *pyeonbokpo* had double collar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ey disappeared in the seventeenth century: a straight line also replaced by a curve for the collar perimeter. Front-adjusting of *pyeonbokpo* was very deep in the early Joseon dynasty; front-adjusting became simple in the late Joseon dynasty, resulting in the central positioning of a ribbon. The rectangular form of a gusset(*mu*) was stitched to the bodice through various pleats. Gusset patterns changed greatly into various forms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along with the ladder gusset form. The long vest(*dapho*) was half-sleeved and had a deep front adjustment in the early Joseon dynasty; however, it did not have collars and sleeves since the eighteenth century.

The waist line of *cheolik* had the ratio of 1.2 to 1 for the bodice to skirt. But the length of skirts grew gradually into the ratios of 1 to 1, 1 to 2, and 1 to 3.8 while the waist line moved upwards to the chest line. Sleeves of all *po* had a straight form but they gradually developed the tendency to widen towards the wrists. Later, sleeves changed again, having a wide rectangular form starting from the armpits. *Cheolik* was widely worn in the early Joseon dynasty; however, it was worn less in later years. Instead, clothes that had slits such as *dopo*, *daechangyeui*, and *jungchimak* were greatly available.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 in men's costumes enable us to measure the time period of excavated findings despite the lack of records for Joseon graves.

Key words: coat(포), *peonbokpo*(편복포), Joseon(조선), excavated costume(출토복식), men(남자), periodization(시대구분)

I. 서론

조선시대 남자복식은 바지, 저고리, 포와 버선과 같이 신분에 관계없이 입는 기본적인 옷이 있었다. 특히 사대부라면 벼슬아치이건 아니건 일상생활에서는 계절이나 실내외를 막론하고 바지·저고리와 같은 기본 복식에 철풍이나 도포 같은 포를 덧입어 예의를 갖추었으며, 관복을 입을 때라도 그 밑에는 편복포를 밑받침 옷으로 입었다.

조선시대의 기본복식은 시대별 형태 변화가 편복포에 비해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며, 저고리의 경우도 깃 형태의 변화가 편복포와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조선시대 편복포의 특징을 파악하면 다른 종류의 의복 분석에도 충분한 참고자료가 된다. 그러나 문헌으로는 복식의 양식변화를 확인할 수 없어 유물조사가 필수적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묘에서 발굴되는 출토복식을 통해 조선시대 복식의 양식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묘주가 밝혀진 사례의 복식 분석을 통해 묘주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복식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즉 출토복식의 양식분석을 통해 시대구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까지 발간된 보고서와 논문을 바탕으로 남자 편복포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고 시대별로 어떠한 양식적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남자 편복포에 대해서는 그동안 출토복식의 발굴로 각종 발굴 보고서와 함께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있었으나, 이를 종합 정리하는 의미에서 편복포의 종류별로 시기에 따른 양식적 특징을 살펴보고, 전반적인 편복포의 시대구분을 위한 분석요소들을 찾아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조선시대 남자 편복의 시대구분을 위한 기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으로는 출토유물 전체를 다룰 수 없어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유물을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다만 이 연구의 내용은 보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중심으로 분석하고 유물의 연대도 묘주의 생몰년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추후의 연구성과 혹은 새로운 출토복식의 발표로 수정될 가능성도 있음을 밝힌다.

II. 편복 포의 종류와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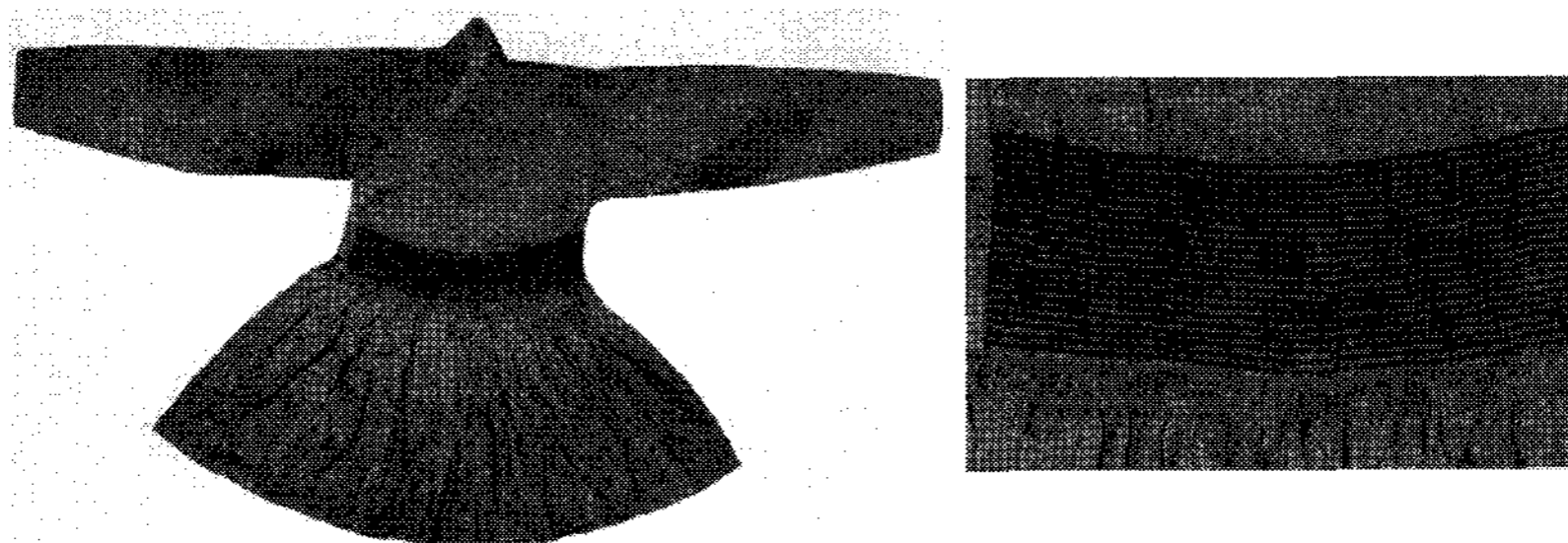
1. 철풍

철풍은 조선 초기부터 빈번히 중국에서 사여되어 왕으로부터 별감 등 중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에서 두루 입었던 옷이다. 용복(戎服)으로, 관복의 밑받침 옷으로 혹은 편복으로 착용되었으며, 당시의 복식으로는 매우 활동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 명칭은 문헌에서 ‘帖裡·帖裏·貼裡·天益·天翼·添里’ 등으로 나타난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왕명에 의해 백관이 용복으로써 철풍을 입고 정사(政事)에 임하게 되었는데¹⁾, 이후 전쟁기간 동안 철풍은 공복(公服)으로 입혀졌다. 그러나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서 전쟁의 심각성이 둔화되고 철풍만으로 계급을 구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철풍의 형태에 계급을 표시하기 위한 과시적 심리가 작용하여, 기능성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전쟁기간에 철풍의 소매가 넓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²⁾ 이에 선조 30(1597)년 “조선(朝臣) 중에 용의(戎衣)의 소매가 넓은 자는 모두 다스려야 할 것이다.³⁾”라고 하는 용복의 착수령(窄袖令)이 내려졌으며, 이후 인조26(1648)년⁴⁾과 효종8(1657)년⁵⁾에도 활동 시 민첩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용복의 광수(廣袖)는 거듭 지적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사회가 안정되면서 용복의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이후 협수 및 동다리의 등장으로 용복으로서 철풍의 기능이 약화⁶⁾되기에 이르자, 조선 후기에는 기존의 주된 착용자인 무신들까지도 철풍을 입어야 할 때 철풍 대신 창의⁷⁾나 직령⁸⁾을 착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 조선 후기의 철풍은 점점 기능성보다는 위엄과 우아함을 강조한 편복포의 외관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조선후기 사회가 안정되면서 착용범위가 차츰 줄어들었다.

철풍 형태의 시대별 변화는 ‘치마 주름의 형태 및 주름 너비, 상의(上衣)와 하상(下裳)의 비율, 소매 모양, 깃과 고름’ 등의 요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허리선에 달린 치마부분의 주름은 철풍을 다른



〈그림 1〉 변수 요선철릭 및 요선의 세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

의복과 뚜렷이 구별해 주는 중요한 특징이다. 고려 말의 철릭은 해인사 불복장유물인 요선(腰線)철릭에서 보듯이 소매통이 좁고 허리선 장식에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유물 중 가로선 장식을 한 유물은 임진왜란 이전 유물인 〈그림 1〉⁹⁾의 변수(1447~1524)묘 출토 철릭에서 21줄의 선장식을 허리에 한 것이 보인다.

상의(上衣)와 하상(下裳)을 연결한 허리선의 위치는 철릭의 시대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의(衣)와 상(裳)의 비율을 보면 조선 초기에는 의가 상보다 길어 '의:상'의 비율이 1.2:1 정도이다.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상이 더 길어져 16세기 중후반에는 의와 상이 비슷한 비율을 이루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1:1.4까지의 비율을 보인다. 17세기 말에는 1:1.7~1:2 정도의 비율을 보이며 이후 점차 길어져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1:2.3,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상이 훨씬 길어져 1:3.6에 이르는 비율을 보인다. 시기별 철릭의 의와 상의 비율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시기별 철릭의 의와 상의 비율

시기	의 : 상 비율
임란이전	1: 1.2
16세기말	1: 1.4
17세기말	1: 1.7~2
18세기말	1: 2.3
19세기말	1: 3.6

주름 너비는 임진왜란 이전에는 허리 부근에 0.2

cm 내외의 가는 주름을 잡았으나 임진왜란 이후 주름의 간격이 넓어져 2cm에서 6cm까지의 너비를 보인다. 이후 17세기 말 무렵부터는 주름의 간격이 다시 줄어들어 '1.5cm~2.5cm'정도, 조선 말기에 이르면 다시 '0.5cm~0.7cm'의 가는 주름이 나타난다. 다만, 임진왜란기의 김덕령 장군의 철릭은 예외적으로 넓은 맞주름을 잡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을 볼 수 있다. 마치 기계로 잡은 듯이 치마의 아랫단 부분까지 곧게 주름을 잡은 양식은 조선 초나 말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의 일부 유물에서 나타난다.

철릭의 소매는 좁은 소매에서 후기로 가면서 점차 넓어져 두리소매가 된다. 변수(1447~1524) 철릭의 소매와 같은 착수형(窄袖形) 및 고운(1479~1530)·정응두(1508~1572) 등의 통수형(筒袖形), 홍계강(~1550)·이언충(1524~1582)의 봉어배래형 소매에서 보듯이 임진왜란 이전에는 '착수, 통수, 봉어배래형 통수' 등의 다양한 소매 형태가 공존하였다. 하지만 임진왜란 기간에는 소매통이 다시 좁아졌음을 김덕령(1567~1596)의 철릭에서 볼 수 있다. 이는 용복으로써의 기능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이 철릭에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다시 소매통이 넓어져 강대호(1541~1624)의 철릭에서와 같이 이전 시기보다 더 곡선화된 봉어배래형 소매가 보인다. 이후 철릭의 소매는 점차 넓어져 두리소매로 변화 되는데, 김여온(1596~1665)과 최원립(1618~1690)의 유물에서 각각 그 중간과정을 볼 수 있다. 이변(1636~1731)의

철릭 이후로는 완전히 넓어진 두리소매로 정착되었다. 조선조 말기까지 두리소매의 형태는 여전히 유지되나 소매의 너비가 이전 시기보다 조금 줄어들게 되었다. 이는 전 박신용(1575~1627)장군과 윤용구(1853~1939)유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깃 모양은 '목판깃형 이중깃 → 칼깃형 이중깃 → 칼깃'의 순서로 변화하였다. 이중깃은 임진왜란 이전의 유물에서만 나타난다. 칼깃의 형태는 후기로 갈수록 깃 궁둥이가 둥글어져 동그래 깃에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인다.

고름을 보면, 조선전기의 철릭은 2쌍의 좁고 짧은 고름과 함께 금선단(金線緞)·운문라(雲文羅) 등과 같은 화려한 직물로 만든 고름바대가 달려 있다. 고름바대는 임진왜란 이전의 유물에서만 보이는 것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2쌍의 짧은 고름 외에 단추나 고리 등으로 여미는 경우도 있다. 고름의 형태는 옆선의 길이가 점차 짧아져 2쌍의 고름을 달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1쌍의 고름을 다는 방식으로 변화하며, 여밈이 점차 알아짐에 따라 고름의

너비가 넓어지고 길이도 길어지게 된다.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는 유물들이 있는데 강대호의 철릭은 긴 고름과 짧은 고름이 각기 한 쌍 씩 달려 있으며, 이 변(1636~1731)과 이익정(1699~1782)의 철릭에서는 1쌍의 고름과 함께 매듭단추로 여미는 양식을 볼 수 있다. 철릭의 시기적 특징을 대표유물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 직령

직령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사대부의 간편한 출입복식 및 생활복식, 무관직자의 의례복식, 관리의 신분복식' 등의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었으며 단령의 밑받침 옷이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에 도포가 널리 확산되면서부터는 중인계급의 관복으로 착용되는 정도로 착용이 다소 줄었지만, 조선조 말까지 여전히 착용되었다. 직령은 단령에 대응하는 옷으로 깃을 제외하고는 단령과 형태도 같아 시대적 변화 또한 단령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직령에서 시대별로

<표 2> 철릭의 시기별 변화

철릭(15세기말~임진왜란기)						
대표 유물	변수 (1447~1524)	김흠조 (1461~1528)	홍계강 (~1550년대)	정응두 (1508~1572)	이언충 (1524~1582)	김덕령 (1567~1596)
깃						
소매						
의:상	약 1:1	1.2:1	1.025:1	1:1.02	1:1.12	1:1.4
고름	고름의 흔적	직접부착형 2쌍고름흔적	직접부착형 2쌍 고름	2쌍 고름	직접부착형 2쌍 고름	-
고름 바대	o (金線緞)	o (骨朶雲紋紗)	x	o	o (雲文羅)	x
주름	0.1~0.3cm	0.2cm	0.15~0.2cm		0.2cm	넓은 맞주름
소장처	국립민속박물관	영주시	단국대박물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자료 출처	한민족역사문화 도감 : 의생활 ¹⁰⁾	16세기 전기 철릭의 구성법 일례 ¹¹⁾	한국복식 20호 ¹²⁾		한국복식 20호 ¹³⁾	임란전후기의 복식구조 ¹⁴⁾

철릭(임진왜란 이후~17세기)					
대표 유물	강대호 (1541~1624)	이응해 (1547~1626)	김여온1 (1596~1665)	김여온2 (1596~1665)	최원립 (1618~1690)
깃					
소매					
의:상	1:1.4	1:1.7	1:1.94	1:1.69	1:1.95
고름	긴고름 1 + 짧은고름1	고름의 흔적	2쌍 고름	2쌍 고름	1쌍 고름(4X52cm)
고름 바대	x	x	x	x	x
주름	2~3cm	5~6cm(칼주름)	3cm	2.5cm	1.5cm
소장처	단국대박물관	충주박물관	안동대박물관		이화여대박물관
자료 출처	한국복식 23호 ¹⁵⁾	이응해장군묘 출토복식 ¹⁶⁾	(길짐승 흉배와 함께하는)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¹⁷⁾		17세기 조선 무관의 차림새 ¹⁸⁾

철릭(18세기~20세기)					
대표 유물	이황 (1651~1724)	이변 (1636~1731)	이익정 (1699~1782)	전 박신용장군 (1575~1627)	윤용구 (1853~1939)
깃					
소매					
의:상	1:1.8	1:1.82	1:2.28	1:2.04	1:3.58
고름	긴 고름 1 + 매듭 단추	긴 고름 1 + 매듭 단추	긴 고름 1 + 매듭 단추	길고 좁은 고름 1	길고 넓은 고름 + 광다회대
고름 바대	x	x	x	x	x
주름	1.8cm(칼주름)	2~2.3cm(칼주름)	1.4cm(칼주름)	2.5cm	0.5~0.7cm
소장처	이화여대박물관	석주선기념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단국대박물관
자료 출처	조선중엽 출토복식에 관한 연구 ¹⁹⁾	한국복식 20호 ²⁰⁾	한국복식 19호 ²¹⁾	조선시대 출토복식을 통해 본 남자포연구 ²²⁾	한국복식 20호 ²³⁾

변화가 나타나는 요소는 '깃, 소매, 무'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직령의 깃은 철릭과 같은 변화 양상을 보인

다. 즉, 이중깃은 임진왜란 이전에만 나타나며 칼깃은 후기로 갈수록 깃 궁둥이가 둥글어 동그래 깃에 가까워진다.

소매는 배래가 수구 쪽으로 사선이 되는 통수에서 후기로 갈수록 두리소매 형태로 바뀐다. 16세기 말에는 진동에서 배래로 떨어지는 선의 모양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두리소매형으로 변화되는 중간과정을 보이고 이후 진동에서 급격한 사선형으로 떨어지는 광수의 두리소매가 된다.

직령의 무는 단령의 무와 그 변화과정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은주는 무의 모양을 각각 다음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²⁸⁾. 15~16세기에는 길의 옆선 안

으로 소형 주름을 접어 넣고 밖으로 큰 주름 하나를 만들어 무 머리 부분을 삼각으로 접어 넣어 옆으로 뻗친 양식인 '대소 안팎 주름형'이 나타나며, 연이어 옆트임 안으로 여러 개의 주름을 잡아 정리한 '네 겹 주름형 무 양식'과 옆선 안쪽의 작은 주름이 없어지고 대신 밖으로 뻗친 큰 주름 하나만으로 구성된 '대형 밖 주름형 무 양식'이 나타나 공존한다. 이후 17세기에는 무를 뒤로 젖히면서 앞길 옆선 쪽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앞길 밑단의 너비를 넓게 하

〈표 3〉 직령의 시기별 변화

직령						
대표 유물	고여우 (1560~1630)	김흠조 (1461~1528)	이인충 (1524~1582)	심수륜 (1534~1589)	김확 (1572~1633)	창덕궁 홍직령
깃						
겉섶	이중섶	이중섶	이중섶	이중섶	이중섶	단섶
소매						
무 형태						
옆선 삼각무	X	X	X	X	O	O
소장처	단국대박물관	영주시	단국대박물관	경기도박물관		창덕궁
자료 출처	도포 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 · 기능론적 분석 ²⁴⁾		한국복식 20호 ²⁵⁾	심수륜묘 출토복식 ²⁶⁾	김확 합장묘 출토복식 ²⁷⁾	도포 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 · 기능론적 분석

고 사다리꼴의 무를 만드는 방법이 등장하였다. 이를 위해 앞길 옆선에 새롭게 삼각무를 삽입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뒤 젓힘 대주름형 무'는 '뒤 젓힘 사다리꼴 형 무'로 변화되었다. 무의 모양이 사다리꼴로 정착되어 무의 상하 너비 차이가 크고, 뒤로 젓혀진 사다리꼴의 무 윗부분을 매듭이나 끈을 사용하여 뒷길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창덕궁에서 발견된 조선말기 홍직령의 모습에서 확인되듯이 뒷길에 상침으로 고정시키게 된다. 이상과 같은 직령의 시기별 변화를 각 시기의 대표유물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3. 액주름(腋注音)

액주름은 임진왜란 이후 점차 사라지는 복식으로 시대별 특징 역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하여 살펴볼 수 있다. 액주름의 시기별 변화는 '깃, 소매, 의(衣)와 상(裳)의 비율, 주름 너비, 고름의 유형, 옆선 삼각무의 형태'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깃은 칼깃형이 주를 이루나 목판깃도 있다. 이중 깃은 임진왜란 전의 일부 유물에서 보인다. 소매는

통수형(筒袖形)과 두리소매형이 공존한다. 의와 상의 비율은 정온(1481~1538)의 유물에서 1:1.69의 비율을 보이며 상의 길이가 점차 짧아져 1580년대에는 1:1.31정도가 된다. 임진왜란 이후 상의 비율이 점차 다시 길어지며 1:2.5정도의 비율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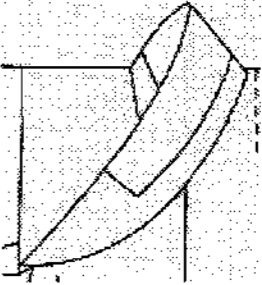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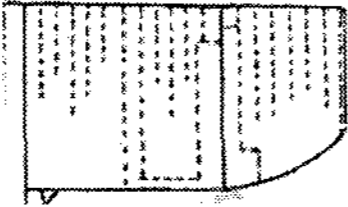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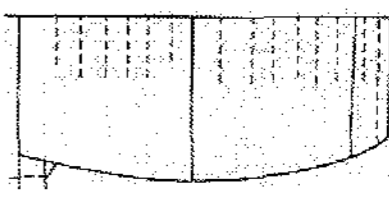
겨드랑이 밑에 달리는 작은 무는 사다리꼴 무와 삼각 무가 함께 달리는 형태와 사다리꼴 무만 달리는 형태가 있다. 임진왜란 전에는 두 형태가 공존하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사다리꼴 무와 삼각 무가 함께 달리는 형태로 통일된다.

액주름의 주름 양식은 맞주름과 외주름이 있다. 임란 전후에 두 양식 모두 공존하지만 주름의 너비에서 차이가 있다. 임진왜란 전에는 주로 0.1cm~0.2cm간격의 외주름이 많으며 맞주름의 경우 1cm정도의 간격이다. 반면, 임진왜란 후에는 외주름의 겹주름 간격은 0.1cm~0.2cm이나 안주름의 분량이 늘어나며, 맞주름의 겹주름 너비도 2.2cm정도로 늘어났다.

고름의 경우, 임진왜란 전에는 '2쌍 고름, 1쌍 짧은 고름, 1쌍 긴 고름'이 공존하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1쌍 고름만 보인다. 고름은 전반적으로 넓어지고 길어

<표 4> 액주름의 시기별 변화

액주름(임진왜란 이전)						
대표 유물	정온 (1481~1538)	정응두 (1508~1572)	신언식 (1519~1582)	이언중 (1524~1582)	이언웅 (~1580년대)	심수륜 (1534~1589)
깃						
소매						
의:상	1:1.69	1:1.57	1:1.54	1:1.39	1:1.31	-
고름	-	1쌍 짧은 고름	1쌍 긴 고름 (너비 3)	1쌍 짧은 고름 (너비 2.5)	1쌍 긴 고름 (너비 6.2)	1쌍 긴 고름 (너비 4)
작은 무	사다리꼴 무 + 삼각무	사다리꼴 무 + 삼각무	사다리꼴 무	사다리꼴 무	사다리꼴 무 + 삼각무	사다리꼴 무 + 삼각무
주름	0.1cm(외주름)	0.1cm(외주름)	1cm(맞주름)	0.2cm(외주름)	0.1cm(외주름)	0.2cm(외주름)
옆트임	x	o (고리로 연결)	x	x	x	x
소장처	단국대박물관					경기도박물관
자료 출처	한국복식 16호 ²⁹⁾	한국복식 9호 ³⁰⁾	한국복식 17호 ³¹⁾	한국복식 20호 ³²⁾	한국복식 20호 ³³⁾	심수륜묘 출토복식

액주름(입진왜란 이후)			
대표 유물	정휴복 (1529~1604)	조경 (1541~1609)	강대호 (1541~1624)
깃			
소매			
의:상	1:1.89	1:2.50	1:2.43
고름	고름 달았던 흔적 있음	1쌍 긴 고름	1쌍 긴 고름(너비 5.5)
작은 무	사다리꼴 무 + 삼각 무	사다리꼴 무 + 삼각 무	사다리꼴 무 + 삼각 무
주름	2.2cm(맞주름)	맞주름	0.1cm(외주름)
옆트임	0	x	0
소장처	단국대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단국대박물관
자료 출처	한국복식 7호 ³⁴⁾	조경묘 출토유의 ³⁵⁾	한국복식 23호

지는 경향을 보인다. 옆트임은 시대에 따라 뚜렷한 변화 양상이 없어 유물에 따른 특징의 차이로 보인다. 이상의 액주름의 시기별 특징을 대표유물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4. 답호

조선 초기부터 17세기 중반까지 보이는 답호는 소매가 짧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직령과 같은 형태이며, 깃과 무의 시대적 변화도 직령과 그 양상을 같이 한다. 소매는 변수(1447~1524)와 정응두(1508~1572)의 유물에서는 소매가 매우 짧으나 화장이 점차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배래는 대체로 직선의 형태이나 심수륜(1534~1589)의 유물과 같이 수구를 향해 넓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는 직령에서와 같이 소매가 두리소매형으로 변화하는데 적응한 것으로 보이며, 두리소매가 정착된 이후로는 반소매형의 답호보다는 소매가 없는 전복형의 답호가 더 적합하여 일반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의 변화 역시 직령과 그 맥을 같이하는데, 초기에는 진동선보다 아래에 무가 달렸으나 차차 그 위치가 올라가 옆선의 길이보다 위에 달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고름을 달 공간이 부족해짐

에 따라 고름은 2쌍 고름에서 1쌍 고름으로 변화하였다. 여밈도 반소매 답호의 경우 여밈이 깊고 고름을 단 것에 비해 소매가 없는 답호는 대금형(對襟形)으로 앞 중심선에 매듭단추로 여며 반소매의 답호와 구분되었다.

한편 조선왕조실록에서 정조 20(1796 병진)년 3월의 기록을 보면 이명연(李明淵)이 세속과 어울리지 않는 옷에 대해 이르기를, “유신(儒臣)이 입고 있는 창의(釐衣)는 비록 옛 규례이기는 하나 세속에 어울리기에는 부족할 듯하다.” 하니, 명연이 아뢰기를, “국조의 옛 제도에 당상관은 자색(紫色)을 입고 당하관은 비색(緋色)을 입어 이를 답호(答護) 포라고 하였는데, 신이 입고 있는 것 역시 비색 답호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여기서 옛날식의 답호를 세속에 어울리지 않는 창옷으로 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18세기에는 답호에 소매가 달린 것은 평범치 않은 고식(古式)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출토유물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17세기부터는 소매가 없는 양식이 등장하여 점차 주류를 이루었다. 소매가 없는 답호는 맞깃 모양의 깃을 달았으나 점차 아예 깃을 달지 않는 모양으로 바뀌었다. 길의 옆선에 달았던 사각무도 삼각무로 바뀌었다. 트임도 양옆은 조금 트고 뒷 중심선을 깊이 트는 양식

<표 5> 답호의 시기별 변화

답호					
대표 유물	변수 (1447~1524)	정응두 (1508~1572)	심수륜 (1534~1589)	조경 (1541~1609)	강대호 (1541~1624)
깃					
깃섶	이중섶, 단섶	단섶	이중섶	단섶	단섶
소매					
고름	2쌍 고름	간접부착형 2쌍 고름	1쌍 고름	1쌍 고름	-
무형태					
소장처	국립민속박물관	단국대박물관	경기도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단국대박물관
자료 출처	한민족역사문화도감 : 의생활	한국복식 9호	심수륜묘 출토복식	조경묘 출토유의	한국복식 23호

전복형 답호				
대표 유물	최원립 (1618~1690)	의원군 (1661~1722)	이직 (1677~1746)	조선말기 형태
깃				
여밈	매듭단추	매듭단추	매듭단추	매듭단추
트임	옆트임 뒤트임	옆트임	옆트임	옆트임 뒤트임
옆선 삼각부	0	X	X	0
소장처	이화여대박물관	경기도 박물관	단국대박물관	
자료 출처	17세기 조선 무관의 차림새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36)	한국복식 22호37)	한국복식 20호38)

으로 자연스레 정착된다. 답호와 전복은 다양한 형태의 유물이 보여 시대에 따라 일정한 변천 양식을 정리하기는 어려우나, 조선조 말에는 깃 없이 목둘레가 파이고 때로는 섶도 달지 않은 양식이 일반적이었다. 이상의 답호의 시기별 변화 양상을 대표유물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5. 도포

도포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사대부의 일상용 포로 알려져 있으나, 이미 임진왜란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도포는 깃이 곧고 소매가 넓으며 무가 달리고 뒤트임이 있는데, 뒷길에 별도로 뒷자락이 달려 있어 트임이 벌어져도 하의(下衣)가 걸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⁴¹⁾ 시대에 따라 무의 구조, 트임의 유무, 한판(汗版)의 유무 등과 관련된 다양한 양상 속에서 일련의 발전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러한

형태상의 특징 파악을 통해 제작 시기의 판별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⁴²⁾

도포는 임란 이전 고관 상류층이 착용하는 신분복식으로서의 기능이 강한 편이었으나, 임란 이후 하향전파 양상에 의해 유생과 사대부까지도 착용하는 생활복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⁴³⁾ 17세기에 이르러 도포의 착용이 이전보다 보편화되었고, 후대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도포를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조선 후기의 신분제 문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깃은 칼깃에서 후기로 갈수록 동그래 깃으로 변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나, 영조의 도포는 목판깃과 당코깃이 합쳐진 반목판깃으로 되어 있다.

소매 모양은 두리소매로, 화장이 길고 소매 너비가 비교적 넓지 않은 형태에서 후기로 갈수록 화장은 짧아지면서 소매 너비는 매우 넓어지는 광수(廣袖)형의 두리소매가 된다.

<표 6> 도포의 시기별 변화

도포(한판이 없는 유형)					
대표 유물	이석명 (1513~1583)	김약 (1559~1625)	정광경 (1586~1644)	이대소장 (17세기)	영조대왕 도포 (1740)
깃					
겉섶	이중섶	이중섶	이중섶	단섶	단섶
소매					
무 형태					
옆선 삼각무	X	X	X	O	O
소장처	서울대박물관	안동대박물관	경기도박물관	이화여대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자료 출처	이석명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³⁹⁾	도포 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 · 기능론적 분석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⁴⁰⁾	도포 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 · 기능론적 분석	

도포(한판이 있는 유형)					
대표 유물	전 박장군 (17세기중엽추정)	김확 (1572~1633)	홍극가 (~1670)	이대소장 (19세기)	20세기이후 안동도포
깃					
겉섷	이중섷	이중섷	이중섷	단섷	단섷
소매					
무 형태					
옆선 삼각무	X	X	X	O	O
소장처	충북대박물관	경기도박물관	안동대박물관	이화여대박물관	안동대박물관
자료 출처	도포 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기능론적 분석	김확 합장묘 출토복식	도포 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기능론적 분석		

겉섷은 이중섷에서 단섷으로 변화하며, 섷선의 위치도 초기에는 중앙에 위치하던 것이 점차 착용자의 왼쪽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오른쪽 옆선 가까이의 겨드랑이 아래 부근에 달리던 고름도 점차 중앙으로 이동하게 되며, 고름의 형태도 좁고 짧은 고름에서 길고 넓은 고름으로 변화하였다.

한판이란 어깨바대가 등까지 길게 연장되어 내려와서 앞길의 무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도포의 형태를 결정짓고, 시대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한판이 없는 유형이 먼저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한판이 있는 유형은 홀으로 되어 뒷길에 직접 앞길의 무를 고정하기 어려운 홀도포에서 많이 보인다.

도포의 무는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되었으며, 이는 주는 이를 한판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다시 각각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한 바가 있다.⁴⁴⁾ 사각형 무의 처리에 있어서 16~17세기에는 길과 연결된 부분에 주름을 넣는 방식이 있었으나 차차 주름은 생략되어 없어졌으며, 17세기에 앞길과 기존의 무

사이에 삼각형 무를 새롭게 삽입하거나 한판에 무를 다는 방식 등이 나타났다.

개화기의 개량도포에서는 뒷중심에서 갈라졌던 무가 봉합되어 한판에 연결됨으로써 도포의 형태는 뒤트임이 없는 단순한 구조를 지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무의 쪽 수도 과거의 네 쪽에서 세 쪽으로 감소했다. 도포의 시기별 변화를 대표유물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6. 중치막과 창의를

중치막과 창의를 모두 끈은 깃이고 옷의 옆선이나 뒷 중심선에 트임이 있지만, 트임의 위치와 소매너비 등을 기준으로 명칭이 달라진다. 이들은 사대부들의 외출복이나 실내에서 입는 겉옷으로 혹은 관복이나 도포 등 다른 편복포의 받침옷으로도 입혀졌다. 창의를 관복의 밑받침 옷으로 착용한 것은 유물에서도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밀창군(1677~1746)의 묘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면, 보공(補空)으로 넣은 조복에

중단(中單)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대신에 고급 비단류를 사용한 창의를 발견되어 조복의 중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⁴⁵⁾.

한편 『순조실록(純祖實錄)』에 “문음관(文蔭官)의 철릭이 지금은 창의로 변하였습니다.⁴⁶⁾”라고 하여, 19세기 초에는 철릭 대신 창의를 입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조선 후기 출토유물의 현황을 봐도 창의를의 수량 증가는 철릭의 수량 감소와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다.⁴⁷⁾

이와 같이 조선 후기에 이르면 이전까지 관복의 밑받침 옷으로 착용된 철릭의 자리를 중치막이나 창의를 점차 대신하게 되고 ‘직령·장의·액주름’ 등 전란 이전에 착용된 편복포들은 전란 이후 쇠퇴하거나 용도가 축소되었다. 그 중 넓은 소매의 포는 겉에, 좁은 소매의 포는 관복의 밑받침으로 입거나 서민층이 입는 옷으로 구별⁴⁸⁾되게 되었다.

‘대창의·중치막·창옷·학창의’는 ‘소매의 너비,

트임의 유무, 장신선의 유무’ 등의 기준에 따라 구별된다. 조선조 말의 유물을 기준으로 분류한 윤미화⁵¹⁾의 논문에서는 소매가 넓고 무가 있으면서 뒷중심선에 트임이 있는 것은 대창의, 소매가 넓지만 무가 없어 옆이 트인 것은 중치막, 소매가 좁고 무가 없이 옆이 트인 것은 소창의 혹은 창옷이라고 지칭하였다.

하지만 조선중후기 유물의 경우에는 무의 존재여부나 소매너비를 기준 삼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옆선이 트인 경우는 중치막, 뒷중심선이 트인 경우는 창의로 분류하기도 한다. 조선 중후기에는 소매 모양이 두리소매로 이행되기 전이고 포의 도련선도 밖을 향해 곡선을 이루며 펼쳐지기 때문에 옆 트인 포라도 넓게 펼쳐진 도련선을 만들기 위해 무를 필요로 한다. 때로는 무를 이중으로 달리기도 하고, 4cm~5cm에 불과한 좁은 폭의 무가 달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치막의 경우 일찍부터 그 존재가 확인되는데, 때로는 소매를 철릭과 같이 분리할 수 있게 만든 유

<표 7> 중치막의 시기별 변화

중치막					
대표 유물	김위 (1558~1618)	정재후 (1624~1695)	이황 (1651~1724)	이익정 (1699~1782)	홍선대원군 (1820~1898)
깃					
소매					
트임	 무 너비 12.5cm	 삼각형 무 4.3cm	 트임길이 66cm	 트임길이 66cm	
소장처	충북대박물관	경기도박물관	이화여대박물관	단국대박물관	이화여대박물관
자료 출처	창의류에 관한 연구 ⁴⁹⁾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조선중엽 출토복식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 19호	복식 ⁵⁰⁾

〈표 8〉 대창의의 시기별 변화

대창의				
대표 유물	김덕원 (1634~1704)	남오성 (1643~1712)	의원군 (1661~1722)	이익정 (1699~1782)
깃				
소매	 소매너비 33cm	 소매너비 49cm		 소매너비 60cm
트임				
소장처	김재호	국립민속박물관	경기도박물관	단국대박물관
자료 출처	창의류에 관한 연구	남오성 묘 출토복식 ⁵²⁾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한국복식 19호

〈표 9〉 소창의의 시기별 변화

소창의				
대표 유물	정재후 (1624~1695)	남오성 (1643~1712)	의원군 (1661~1722)	이익정 (1699~1782)
깃				
소매		 25		 31, 30.5, 30, 12, 24
트임		 35, 38		 75, 80, 28
소장처	경기도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경기도박물관	단국대박물관
자료 출처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남오성 묘 출토복식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한국복식 19호

물도 발견된다. 17세기 전반기의 유물은 통수(筒袖)이고 양 옆에 무가 있으면서 옆트임도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⁵³⁾ 당시에는 조선조 말의 중치막과 달리 옆선이 밖으로 곡선을 이루며 펼쳐졌기 때문에 옆선에 트임이 있더라도 무가 필요하였으며, 넓은 도련에 맞추어 섶도 넓어 여밈도 깊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을 지나 18세기에 이르면, 중치막의 무는 자연스럽게 퇴화되었다.

한편 18세기 중반이후 좁은 소매는 더욱 좁아지고 넓은 소매는 더욱 넓어져서 두리소매를 이루게 되는데,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대창의와 소창의다. 대창의는 광수(廣袖)이며 양 옆에 큰 무가 달리고 뒤트임이 있어서 도포와 같은 위엄 있고 우아한 편복포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학창의는 흰색 대창의의 '깃, 도련, 수구' 등에 검은 선을 둘러 심의를 대신하여 많이 착용되었다. 소창의는 중치막과 비슷하지만 소매통이 좁고 옷의 길이 및 크기도 더 축소되어 활동적이고 기능적이다. 이와 같이 각각의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면서 다양한 모습의 창의류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용도에 따라 적합한 포를 골라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창의류의 착용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홀·겹·누비·솜' 등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다른 포류에 비해 현저히 많은 출토량을 보이는 것도 모두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중치막과 대창의, 소창의의 시기별 변화를 대표유물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7>, <표 8>, <표 9>와 같다.

Ⅲ. 편복포의 시대구분을 위한 분석 요소

조선시대는 오백년이란 긴 세월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한 왕조이지만 시기별로 복식의 변화를 뚜렷하게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 이어 계속 입혀 온 옷이 있는가 하면, 사라진 옷도 있고, 때로는 새로 생겨난 옷도 적지 않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의복이라 할지라도 그 명칭은 지속되지만, 세부 장식이나 전체적인 모양에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편복포 중에서 '철릭, 직령, 답

호' 등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도포, 창의, 협수, 전복'처럼 조선 초의 묘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액주름처럼 조선 후기에는 사라지는 것 등 다양하다.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에 나타난다. 17세기와 18세기의 조선의 편복포는 그 종류도 다양하고 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점차 넓은 소매통과 높은 허리선을 특징으로 하는 모습으로 정착된다.

편복포의 형태는 포의 종류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이다. 시대구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형태적 요소를 찾아 그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깃

조선시대의 편복포는 대부분이 곧은 깃이다. 관복으로 착용된 단령과 달리 편복에서는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곧은 깃의 모습이 조선조 말까지 지속되어 나타난다. 곧이 예외라고 하면 조선조 말의 답호 정도이다. 깃 모양은 포의 종류를 구분하는 요소인 동시에 그 곡선의 정도에 따라 시대를 측정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조선 전기 편복포의 특징은 이중깃이다. 초기의 목판형 이중깃이 칼깃형 이중깃으로 바뀌고, 조선후기가 되면 이중깃이 아닌 칼깃 형태로 바뀐다. 이것은 다시 18세기에 깃 궁둥이가 둥그런 모양의 둥그레 깃 형태로 변화된다. 이러한 특징은 철릭은 물론 '직령, 창의류, 도포' 등 모든 곧은 깃의 포류와 저고리에 두루 나타나는 매우 보편적인 특징이다.

2. 소매

편복포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시기별 변화의 특징은 소매에서 찾을 수 있다. 답호와 전복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복은 긴 소매가 특징이다. 그러나 조선 전기의 포는 전반적으로 화장이 긴 반면, 말기로 갈수록 옷의 크기에 비해 소매길이는 짧아진다.

소매의 배래선도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조선 전기에는 배래선이 일직선이였다. 그러나 중후기로 가면서, 소매너비가 좁은 착수이건 비교적 넓은

통수이전 관계없이 일직선의 배래는 진동에서 배래가 사선으로 점차 넓어지는 모양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다시 진동에서 배래가 수직으로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며, 소매의 모양이 직사각형을 이루는 두리소매로 정착된다. 반면 창옷이나 협수, 주의와 같은 좁은 소매의 편복포는 배래선이 사선으로 수구를 향해 좁아지는 모습을 띠게 된다. 다만 조선조 말에는 좁은 소매라 할지라도 배래선이 일직선을 이루다가 수구 근처에서 봉어배래와 같이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는 모양으로 정착되었다.

3. 무

조선 초기의 직령이나 답호의 무는 직사각형이며, 진동에서 약간 내려와 달려 있었다. 따라서 진동과 무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었고, 그 부분이 고름 등의 여밈을 맺는 장소였다. 하지만 점차 무의 위치가 차츰 올라가 17세기에는 진동 바로 밑에 달려 있게 되었다.

직사각형의 무를 접어 넣는 방식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그 다양한 모습 중, 무의 윗부분을 주름잡아 진동 아래에 봉제한 포가 액주름이다. 그러나 17세기에 보행에 필요한 무의 아랫단은 여전히 넓게 유지하면서 윗부분의 필요없는 공간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에 삼각무를 대거나 사다리꼴의 무를 사용하게 되면서 직령과 답호의 무를 다는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대신 직사각형 무의 윗부분에 주름을 잡아 처리한 액주름은 사라졌다.

사다리꼴의 무가 처음 출현했을 때는 무를 길의 옆선에 달되 진동 바로 아래부터 달기 시작하여 무의 바깥쪽 윗부분은 진동보다 오히려 약간 올라간 모양이었다. 하지만 말기로 가면 사다리꼴 무를 뒤로 젖히게 되어 무의 모양이 정면에서 보면 삼각형이고 뒤쪽에서 보면 접은 무의 윗부분을 바느질이나 매듭 단추 등으로 고정된 모습이 된다. 이러한 특징은 단령의 무와 그 변화를 같이 한다.

한편 도포는 직령에서 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직령의 무를 펼쳐 뒷길의 안쪽에 넣으면 도포가 되며, 도포는 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4. 섶과 여밈, 옷고름의 변화

조선 전기의 포는 품도 매우 넓고 여밈이 깊었다. 따라서 고름의 위치가 진동 가까이에 있고 무의 위치도 비교적 낮았기 때문에 고름을 2쌍 이상으로 다는 경우가 있었다. 철릭의 경우 조선 전기에는 고름 바대에 금선단을 대기도 하였다. 고름을 다는 방법도 직접 부착형이 아닌 간접 부착형이나 매듭 등의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조선후기로 가면 여밈이 얇아짐에 따라서 한 쌍의 고름으로 정착되고 그 위치가 중앙으로 옮겨졌다. 고름의 너비와 길이도 확대되었다.

여밈의 깊이 변화는 포의 외곽선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가 달린 포는 물론, 중치막이나 소창의 등 옆이 트인 포의 경우에도 17세기에는 도련선이 진동에 비해 훨씬 바깥쪽으로 펼쳐져 있었다. 때문에 작은 무를 달거나, 섶과 무의 폭을 확보하기 위해 이중으로 섶과 무를 단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19세기로 가면서 포의 옷자락이 진동에서 수직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에 따라 섶의 너비가 줄어들면서, 중치막과 소창의 같은 옆 트인 포의 무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5. 상의하상(上衣下裳)의 비율

조선시대 철릭의 허리선의 위치가 시기별로 다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철릭 외에도 상의하상의 비율이 변화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물론 철릭과 같이 허리에 봉제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화가 뚜렷하지만 다른 포들도 무의 위치가 올라가면서 허리띠를 매는 위치가 위로 올라갔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은 짧은 상의에 길고 풍성한 치마를 입었던 조선 후기 여성복식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며, 장대화된 고름과 함께 우아함과 품위를 중요시한 조선후기의 시대적인 이상미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宣祖實錄, 25年 4月 庚寅
- 2) 李銀珠 (1989). 철릭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한국의류 학회지, 13(4), pp. 326-327.
- 3) 宣祖實錄, 30年 9月 癸巳
- 4) 仁祖實錄, 26年 10月 甲辰
- 5) 孝宗實錄, 8年 1月 癸丑
- 6) 金중숙 (2003). 조선시대 철릭 연구. 韓國服飾, 21, p. 24.
- 7) 英祖實錄, 2年 10月 丙寅
- 8) 英祖實錄, 19年 3月 戊辰
- 9) 국립민속박물관 (2000).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 : 원주변씨 출토유물 기증전. 국립민속박물관.
- 10) 국립민속박물관 (2005). 한민족역사문화도감 : 의생활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국립민속박물관.
- 11) 李銀珠 (1999). 16세기 전기 철릭의 구성법 일례 -김홍조(1641-1528) 분묘 출토의 철릭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7(2).
- 12) 박성실, 김향미 (2002). 조선시대 기능적 馬上衣의 실증적 고찰. 韓國服飾, 20.
- 13) 박성실 (2002). 서울시 중계동 출토 星州李氏 大司憲 彦忠(1524-1582)墓 복식 고찰. 韓國服飾, 20.
- 14) 김동욱 (1979). 임란전후기의 복식 구조: 최근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22.
- 15) 고부자 (2005). 경기도 파주 출토 晉州康氏(대호, 1541-1624)유물 연구. 韓國服飾, 23.
- 16) 충주박물관 (2004). 이응해 장군묘 출토복식. 충주박물관.
- 17) 李銀珠, 조효숙, 하명은 (2005). (길짐승 흥배와 함께 하는)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민속원.
- 18) 담인복식미술관 (2006). (최원립 장군묘 출토복식을 통해 본)17세기 조선 무관의 차림새.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 19) 홍나영 (1996). 조선중엽 출토복식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3), pp. 527~537.
- 20) 박성실, 김향미 (2002). 앞의 논문.
- 21) 고부자 (2001). 상암동 출토 全州李氏 益炬(1699-1782) 유물연구. 韓國服飾, 19.
- 22) 유송옥 (1984). 조선시대 출토복식을 통해 본 남자포 연구. 대동문화연구.
- 23) 박성실, 김향미 (2002). 앞의 논문.
- 24) 李銀珠 (1998). 앞의 논문.
- 25) 박성실, 김향미 (2002). 앞의 논문.
- 26) 경기도박물관 (2004). 심수륜묘 출토복식. 경기도박물관.
- 27) 경기도박물관 (2007). 김확 합장묘 출토복식 : 안동김씨 문은공파. 경기도박물관.
- 28) 李銀珠 (1998). 道袍 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 기능론적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92~111.
- 29) 박성실 (1998). 坡州 金陵里 慶州鄭氏 유물 小考. 韓國服飾, 16.
- 30) 박성실, 고부자 (1991). 高陽 陵谷 茂院 出土 羅州丁氏 月軒公派 出土遺物 小考. 韓國服飾, 9.
- 31) 고부자 (1999). 日迎 出土 高靈申氏 遺物 小考. 韓國服飾, 17.
- 32) 박성실 (2002). 앞의 논문.
- 33) 박성실, 김향미 (2002). 앞의 논문.
- 34) 박성실 (1989). 城南出土 東來鄭氏 出土遺物에 관한 小考. 韓國服飾, 7.
- 35) 서울역사박물관 (2003). (豐壤趙氏寄贈)趙徹墓出土遺依. 서울역사박물관.
- 36) 경기도박물관 (2001).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
- 37) 박성실 (2004). 서울 상암동 출토 전주이씨 밀창군 복식 고찰. 韓國服飾, 22.
- 38) 박성실, 김향미 (2002). 앞의 논문.
- 39) 이순원, 유효선, 조우현 (2000). 이석명(李碩明)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 40) 경기도박물관 (2003).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서울 사당동 흥곡공파 일가. 경기도박물관.
- 41) 유희경, 김문자 (1998).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 238.
- 42) 李銀珠 (1998). 앞의 논문, p. 153.
- 43) 李銀珠 (1998). 앞의 논문, pp. 203~205.
- 44) 李銀珠 (1998). 앞의 논문, pp. 119~161.
- 45) 박성실 (2004). 앞의 논문, pp. 100-101.
- 46) 純祖實錄, 34年 4月 甲子
- 47) 장인우 (1995). 조선중기 출토복식 중 일반복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82.
- 48) 홍나영 (1996). 앞의 논문, p. 535.
- 49) 윤미화 (1982). 앞의 논문.
- 50)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95).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圖錄 제23권 '服飾',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 51) 윤미화 (1982). 창의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95.
- 52) 국립민속박물관 (2004). 남오성 묘 출토복식. 국립민속박물관.
- 53) 李銀珠 (2003). 동래정씨 흥곡공 일가 남자묘에서 출토된 복식류. 동래정씨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 p. 170.